

대학의 사회봉사와 초·중·고교 자원봉사 협력 방안*

이 대 순 / 호남대 총장

지금의 사회봉사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자원봉사를 제도화함으로써 봉사가 강요될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간의 산업사회의 폐해와 배금주의로 인해 실종된 봉사의 덕목을 소생하고 생활화하는 것은 민족 공동체 회복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가 각급학교 교육에 필수적 교육과정으로 인식되어 제도화되고 있는 만큼 초·중·고교와 대학의 사회봉사를 연계하여 체계화할 필요성이 크다.

* 이 글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춘계 세미나('98. 4. 30)에서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1. 서 언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봉사 활동이 점차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사회봉사, 자원봉사, 자원활동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봉사활동 관련 용어들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민간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고, 일부 기업에서도 모든 사원의 자원봉사 활동을 의무화하며, 신입사원 채용시에 봉사활동 경력자를 우대하려는 추세이다. 한때 국회에서도

자원봉사 진흥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기도 하였다. 비록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폐안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우리나라에 정착시켜 나가자 했던 것으로 의미가 크다. 한편, 교육계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 5·31 교육개혁에서는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내용을 기재하여 상급학교 진학시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중·고교에서도 사회봉사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대학에서는 한

양대 등 일부 대학이 '95년 1학기에 사회봉사 학점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현재 100여 개 대학들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봉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 입학시험에도 고등학교 사회봉사 기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영하고 있다. 대학의 사회봉사 교육과 활동은 앞으로도 새로운 방향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96년 가을 일부 대학총장들이 주동이 되어 한국대학사회봉사 협의회를 조직하였고, 대학의 사회봉사 교육과 각종 봉사활동에 관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97년 여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생 해외봉사단이 아시아의 4개국에 파견되기도 하였다. 현재 가입 회원교는 대학 114개교, 전문대학 58개교이며, 점차 증가될 전망이다.

자원봉사 활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비롯하여 모든 국가로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과히 세계적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원봉사 활동이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라에 따라서는 그 활성화의 배경과 상황이 다소 차이가 있기도 하다. 미국은 국가나 정부가 탄생하기 이전에 이미 지역사회가 존재하였고 자원봉사 활동이 있어 왔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지역공동체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역공동체가 파괴되거나 파괴될 위험이 닥칠 때에는 그 재건운동으로서 그때마다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였던 것이다.

1990년 미국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58%가 자원봉사 경험이 있다.

이들 중 29%는 대학 교육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3천여 고교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중 40%에 이르는 고교가 자원봉사를 졸업필수로 의무화하고 있다. '94년 현재 17개 주정부가 자원봉사를 공립고교 졸업필수로 규정한 것을 허용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사회봉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교과외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은 대학이 거의 없을 정도이며, 일부 명문사학들은 중·고교 사회봉사 활동을 입학조건으로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85년에 브라운 대학, 조지타운 대학, 스탠퍼드 대학의 총장들이 중심이 되어 창설한 미국 대학 사회봉사연합협의회(Campus Compact)는 지난 십여년간 급성장하여 520여 고등교육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¹⁾

이웃 일본에서도 일찍이 자원봉사 활동이 도입되어 왔으나, '60년대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사회화되어 왔다. '70년대에는 시민운동과 지역 자원봉사 추진기관이 확산되었고 '80년대에는 더욱 다양화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상호협력체가 구성되었다. '81년에는 교원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 자원봉사 학습지도자 연락협의회'가 결성되어 학교교육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풀뿌리식 운동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91년에 문부성이 『학습지도요령』에 '근로와 사회봉사정신'을 기리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92년에 문부성의 생애학습심의회가 『금후 사회의 동향에 대응한 생애학습의 진흥방책에 관하여』라는 답신 속에서 자유봉사 활동 진흥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문부성('93년)이 '고교 입시의 내신서에서 자원봉사 활동 결과를 적극적으로

1)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미국의 자원봉사 유래와 현황』, 1996, p. 244.

로 평가'하도록 전국 교육위원회에 통보하였다. 그리고 후생성의 중앙복지심의회 지역복지부회는 21세기까지 국민의 과반수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는 답신을 제출하였다.

일본 사회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이 범사회적인 시민운동으로 활성화되고 보급되게 된 것은 워라 해도 처참한 '한신대지진'으로 인한 재난이 계기가 된 것이다. 각급 학교와 대학에서도 교육과정에 이를 반영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초·중·고교에서의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교사교육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교사의 체험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교원양성기관에서는 봉사활동의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특히 교육적 측면에서 자원봉사가 다양한 인생경험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인생관을 정립하고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균형있는 인간발달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듯 자원봉사는 사회적 측면에서나 교육적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한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봉사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자원봉사를 제도화함으로써 봉사가 강요될 뿐만 아니라, 봉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원봉사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다시 말해 우리 교육계의 현실에 비추어 자칫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간 산업사회의 폐해와 배금주의로 인하여 실종되어 버린 옛 조상들의 진솔한 삶의 전통에서 빛났던 봉사의 덕목을 이러한 형식을 빌어 다시 소생하고 생활화하는

것은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도 제도화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발전시켜왔다는 선례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²⁾

2. 대학 사회봉사의 개념과 특징

중·고교와 대학의 사회봉사 교육은 미국에서는 '봉사학습'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봉사학습이란 봉사와 학습의 동시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 목적이 있다. '행동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oing) 혹은 '경험에 의한 학습'(learning through experience)이라는 교육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험교육'(experiential education) 철학에서 유래된 개념이기도 하다.

봉사학습의 개념을 '봉사'(service)와 '학습'(learning)의 두 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봉사' 혹은 '서비스'란 남과 함께 나누는, 남에게 베푸는 어떤 행동 혹은 행위를 뜻하며, '학습'이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태도를 습득하는 과정으로 학습 이전에 해 낼 수 없는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봉사와 학습 두 개념의 접목은 '봉사'라는 특정학습의 필요성을 중시하는 경험교육 학풍이 만들어 낸 개념이다.

특히 봉사학습은, 봉사는 봉사자의 경험 이 봉사자와 수혜자, 양측의 삶을 개선하는 상호 호혜성 요소를 지니므로 전통적인 교실 혹은 강의실에서의 학습과 다른 차원을 갖는다. 아울러 봉사자의 직접적인 경험은

2) ボランティア 백서 (1995년판)(JYVA), pp. 182~187.

자신의 경험에 비취 본 교육적 반성 요소를 지니기 때문에 단순한 자원봉사와 구별될 수 있다. 반성의 요소는 봉사행위를 실제적인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상황에서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 지적인 반성 혹은 시민으로서의 반성을 중시하는 학습목표를 지닌다.

결국 봉사학습이란 봉사학습의 목표에 따라 중·고교 교육현장에서 혹은 대학교육 현실에서 다소 달리 정의될 수 있다. 중·고교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교 내에서 혹은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며 봉사경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경험에 의한 학습의 과정”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대학의 경우, 학생 입장에서의 학습뿐 아니라 교수, 연구 등 보다 포괄적인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어, 봉사학습은 학업-봉사 연계, 봉사에 기초한 교수·학습·연구, 아카데미에 기초한 봉사 등과 동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³⁾

교육, 연구, 봉사는 대학의 3대 기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은 교육과 연구기능에 대해서만 치중해왔고 사회봉사 기능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왔다. 물론 교수의 사회봉거나 대학생들의 농촌 봉사활동 등은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왔고 또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면도 있다. 그러나 대학의 봉사기능에 대한 연구와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는 근래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술했듯이 세계적 추세와 사회적 배경이 우리나라 대학의 사회봉사 활동을 촉발시킨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교육적 측면에서 대학 사회봉사의 의미는 매우 큰 것이다.

첫째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다. 현대는 공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물질주의, 배금주의가 팽배하고 가치관의 혼돈으로 인간성을 상실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학교교육도 대중화되면서 그 한계점을 드러내고 우리나라 특유의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해 인간화 교육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도 수행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회복 운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인간존중의 정신풍토 위에 정보화사회를 구축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대학으로서는 학교교육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인성교육을 어떠한 형태로라도 보완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다.

둘째로 공동체 재건을 위한 실천활동이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위기는 공동체의 파괴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식의 확립은 화급을 요하는 과제이다. 우리 사회에 오랜 전통으로 자리잡았던 두레나 상조계, 품앗이 등 미풍양속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여 공동체를 재건해야 한다.

셋째로 대학의 봉사활동은 민주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대학은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도장으로서 올바른 지도자는 자신에 대한 성찰과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지도자는 그가 처한 사회 저변에 대한 이해와 겸허함 그리고 인간애가 있어야 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양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배양되는 것이다.

넷째로 대학이 소재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인가? 지역사회 의 대학으로서 그 위상의 정립이 필요하다.

3)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미국의 자원봉사 유래와 현황』, 1996, pp. 246~248.

(표) 인구 고령화 속도의 국제비교

국가명	65세 이상 인구비율의 도래 연차		소요연수
	7%	14%	
일 본	1970년	1995년	25년
미 국	1945년	2015년	70년
영 국	1930년	1975년	45년
서 독	1930년	1975년	45년
프랑스	1865년	1995년	130년
스웨덴	1890년	1975년	85년
한 국	2002년	2026년	24년

중앙집권적 시대의 대학은 국가적 인재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지역과는 무관하게 초연한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의 지역 대학은 지역인재를 배출한다는 단순한 교육 기능 외에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두뇌집단이요, 지역개발에 직·간접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섯째로 머지않아 닥쳐올 고령화 사회에 대한 예방적 복지활동이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선진 여러 나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고령화율이 7%에서 14%까지 이르는 연수가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40년 이상에서 130년까지 걸렸지만, 일본은 불과 25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빠른 24년만에 고령화 사회에 도달한다는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대책은 전 국민적 과제이다. 자원봉사 활동을 범사회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모든 교육기관에서 전개해야 할 우리의 절박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학의 자원봉사 활동은 중·고등학교의 봉사활동이나 일반 사회봉사와는 달리 학문연마라는 대학의 특성과 연계되어 전개된다는 점에서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로 대학의 봉사활동은 체험학습임과 동시에 현장학습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대학생이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현실사회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스스로 또는 협동해서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것이다. 오늘날 대학교육이 과거와는 달리 단순한 지식을 전수하는 영역을 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주시할 때에 사회봉사 활동이야말로 산교육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대학의 봉사활동은 대학의 연구활동과 연계되어 전개한다는 데 특색이 있다. 사회과학은 사회의 여러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직면하는 문제는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학의 강의실에서나 연구실에서 취득한 이론과 원리로 직면한 사회현상을 규명할 수 없을 때에 그 문제는 다시 대학으로 옮겨 철저한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셋째로 대학의 사회봉사는 특정 분야만이 아닌 모든 분야, 즉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학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전공을 자원봉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단체나 개인 중에는 이러한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요하는 곳이 있다. 미국의 경우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영역은 청소년 학습지도, 기아, 노인, 부랑자, 취약 청소년, 환경 문제, 문맹 퇴치, 에이즈, 건강, 공공기관 등으로, 다양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활동한다. 대학인의 이러한 활동은 봉사기관들에 필요한 전문부서와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은 방대하며 그 수

준 또한 높다고 볼 때에 사회봉사의 차원에서 이들의 활용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의 기능을 살리고 사회봉사의 특징을 살린 교육적이고 제도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한다.

3. 대학과 초·중·고교의 자원봉사 협력 방안

자원봉사 활동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중·고교의 학교생활기록부제 도입과 대학의 자원봉사 학점인정제도를 통하여 교육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은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입시 위주의 풍토와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원봉사는 다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 제도상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자원봉사에 강제성을 동원한 이유는 중·고등 학생과 대학생은 미래 이 땅의 주인공이요 지도자이기에 자원봉사를 통해서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지도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들의 활동을 통하여 자원봉사의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를 무의미하거나 강제적인 활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 중 상당 부분은 대학과 중·고교의 협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

첫째, 중·고등 학생의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봉사를 위해서는 지도자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중·고등 학생들은 아직 일의 수행 능력이 낮으며 자신의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할 때에도 그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어

려움을 겪을 때가 많으므로 올바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중·고교 교원들은 과중한 수업부담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자원봉사 지도가 어렵기 때문에 중·고교의 자원봉사가 형식적으로 흐르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들은 그들이 습득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소양교육을 받고 자원봉사 보조 지도자가 되어 현장지도를 담당하면서 봉사활동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보조 지도자는 전문가를 도와 봉사자들의 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며, 봉사자들을 통솔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구현해 나갈 역할 담당자들이다. 실제로 미국 대학 사회봉사 센터의 교육내용을 보면 지도력을 개발하는 데 72%의 비중을 두며 특수기술 및 공동체 건설, 분쟁의 조절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사회봉사단이나 센터를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는 데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한 역할 수행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이러한 실례로 광주 Y.M.C.A에서는 지난 4월 제1회 대학생 사회봉사학교를 열어 대학생 자원봉사 지도자를 확보하여 자연계 대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전공을 활용하여 중·고등 학생의 무등산 생태탐사 및 환경오염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지도하게 하고, 타 전공 학생들은 고교 Y지도에 배치하여 바른 자원봉사 활동 지도와 건전한 과외활동을 지도하게 하였다. 이 활동은 중·고생 및 대학생 모두에게 호응도가 높아 중·고생의 자원봉사를 지원할 대학생 지도자 교육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례라 할 것이다.

둘째, 대학과 중·고교의 자원봉사 협력은 상호간에 봉사 영역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한 방안으로 대학생들로 하여금 초·중·고등 학생들의 과외활동 지도에 참여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나 컴퓨터, 외국어, 합창단, 각종 스포츠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전문적인 지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초·중·고등 학생들과 함께 취미 혹은 봉사클럽 활동을 하면 보다 유익하고 심화된 과외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시행하게 되면 초·중·고교와 대학에도 매우 유익한 영향을 줄 것이다. 우선 대학생에게는 봉사 영역을 초·중·고교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그 결과 대학생의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넓혀줌과 동시에 대학생은 과외활동 지도를 통하여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체험하게 된다. 또한 대학생은 초·중·고등 학생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입장이 되므로 스스로의 활동에 책임을 느끼게 되고, 초·중·고등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봉사의 태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봉사활동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게 된다. 과외활동 지도는 전문성을 지녀야 하므로 대학생 스스로 자기 실력을 연마하는 데 더욱 노력하게 되고, 대학에서도 교육과 연구의 기풍이 보다 진작될 것이다. 초·중·고교의 입장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되고, 과외활동 역시 다양하게 활성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고등 학생들은 자원봉사자인 대학생과 자주 접촉하므로 그의 경험과 조언 그리고 상담을 통해 진로선택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교원들의 과외지도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효과도 거둘 수 있고, 학부모의 과외비 부담도 경감시켜 주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의 입학시험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봉사활동'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는 중·고교 봉사활동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 부문에 대한 대안은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나,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신중하고도 과학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고교의 자원봉사를 대학으로 연결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중·고교의 봉사실적을 대학의 특정 계열이나 학부의 입학조건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의·약학 계열이나 사범 및 교육대학, 사회복지 계열 등 인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학부는 자원봉사를 입학요건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차 대학들이 이 방안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넷째, 중·고교의 자원봉사가 현재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봉사활동을 지도할 교원의 사전 준비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갑자기 시행되는 데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이 초·중·고교 교원을 위한 자원봉사 연수를 실시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연수과정의 개설은 초·중·고교의 현실에 맞는 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도 병행하게 될 것이고 이는 대학과 중·고교와의 자원봉사 연계망 구축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자원봉사가 튼튼하게 정착되어 나가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